민주 전대 당권주자 광주 첫 합동연설회

“민주당 변화와 혁신 내가 이끌겠다” 지지 호소

민주당 10·3 전당대회의 당권 레이스가 11일 텃밭인 광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9명의 후보는 이날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첫 정견발표를 통해 각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당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였다. 특히 후보들은 광주가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지기반이란 점을 감안해 저마다 자신이 민주당의 적통이자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백원우 의원은 12일 ‘486 후보’ 단일화를 위해 후보직 사퇴, 백 의원의 정견 발표는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게재 순서는 당일 추첨한 후보 연설 순서를 따랐다.

“민주당 살릴 구원투수”

박주선 의원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나온 민주당의 구원투수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소신없는 정당을 깨끗하게 환골탈태하겠다.

2번의 정권을 3번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이 한을 풀고 원을 달래기 위해서 반드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겠다. 민주당은 이제 새사람으로 새 비전을 제시하고 새 카리스마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다. 이대로는 2012년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꿔야 한다.

당원과 대의원들이 역사적인 위대한 선택을 할 때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는 DJ를 따를 후계가 없다고 한다. 박주선이 해낼 것이다. 호남과 민주당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데 제2의 DJ 심부름꾼이 되겠다.

“대선 1대1 구도 만들어야”

천정배 의원

이명박의 폭압 정권은 민주당이 끝장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역사상 가장 힘없는 정당으로 취급받았다. 이제 확 바뀌어야 한다. 인물도 정체성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 국민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야권도 모두 통합해야 한다. 2012년 대선을 위해서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온몸으로 변화와 개혁을 실천해왔다. 사심 없이 헌신했다. 천정배가 민주당을 맡을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권을 반드시 찾아오겠다. 도와주시고, 부탁한다. 기회를 달라. 광주와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개혁을 이끌어 왔고, 때론 목숨도 버렸다. 호남의 아들이란 것이 자랑스럽다.

“민주진영 대통합 이끌 것”

손학규 전 대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서해 바다가 전쟁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고, 서민생활은 파탄 났다. 촛불도 단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당에 안주하는 ‘토끼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집권 민주당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당원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국민은 패배와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 희망을 보고 있다. 우리가 집권하겠다고 나설 때 국민은 집권 민주당을 만들어줄 것이다. 10월3일은 민주당이 전국민을 향해 ‘이제 우리가 나라를 책임지겠다’라고 집권의지를 만천하에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다. 손학규가 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이끌고 진보를 끌어안고 더 큰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 대통합의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던 광주, 광주의 당원·대의원들께서 새로운 민주당 꼭 만들어 주길 바란다.

“민주진보연합정부 창출”

정동영 상임고문

민주당은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를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10년 전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 연합정치로 가야 한다. 2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했던 길이 연합정치다. 강력하고 넓고 확실할 것이다. 민주진보연합정부를 창출해 낼 것이다. 이를 위해 당을 획기적으로 민주화시키겠다.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공천권을 보장하겠다. 대의원들에게 당의 중요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묻고, 당원증을 가지면 당 간부 누구도 만들 수 있는 당원으로 만들겠다. 또한, 정체성을 살리겠다. 김대중·노무현 바통을 이어받겠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철학이 없다면 제1야당이 이끌어야 한다. 광주가 민주당을 바꾸고 정권을 되찾아 강대국,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서민에 희망주는 나라로”

정세균 전 대표

광주는 5·18 정신이 살아있고, 광주시민·당원의 높은 정치의식은 정치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독재시절 김대중을 지켜내고, 대통령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것도 광주다. 2012년 정권을 다시 되찾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MB정권은 서민으로부터 기회와 희망을 빼앗고, 4대 강 사업을 통해 자연과 생명을 죽이고 있다. 정권의 역주행을 막기 위해 2012년이 중요하다. 저의 꿈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2012년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외부로부터 인재를 영입하고, 키워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과 연대의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대표는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하고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매진해온 인물이어야 한다.

“똑똑하고 젊은 당 만들 것”

최재성 의원

광주는 독재권력을 한번에 녹여버린 용광로였다. 그 정신으로 김대중 정부를 만들었고, 바보 노무현을 만들었다.

MB정부 들어서 국민이 명령하고 있다. ‘민주당이여 집권하라.’라고. 반드시 집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또한, 연대와 통합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연대와 통합 없이는 집권할 수 없다. 국민은 연대와 통합을 통한 최초의 온전한 집권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최재성이 당원, 국민과 함께하겠다. 똑똑한 민주당, 젊은 민주당, 능력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공동체 시장경제·창조적 경영·50대 가장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 선배들은 대통령에 도전하고, 최재성은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집권을 위해 달려가는 기관차가 되겠다. 기관차에 타지 못하는 선배들이 있다면 제가 달려갈 것이다.

“대선승리위해 강한 당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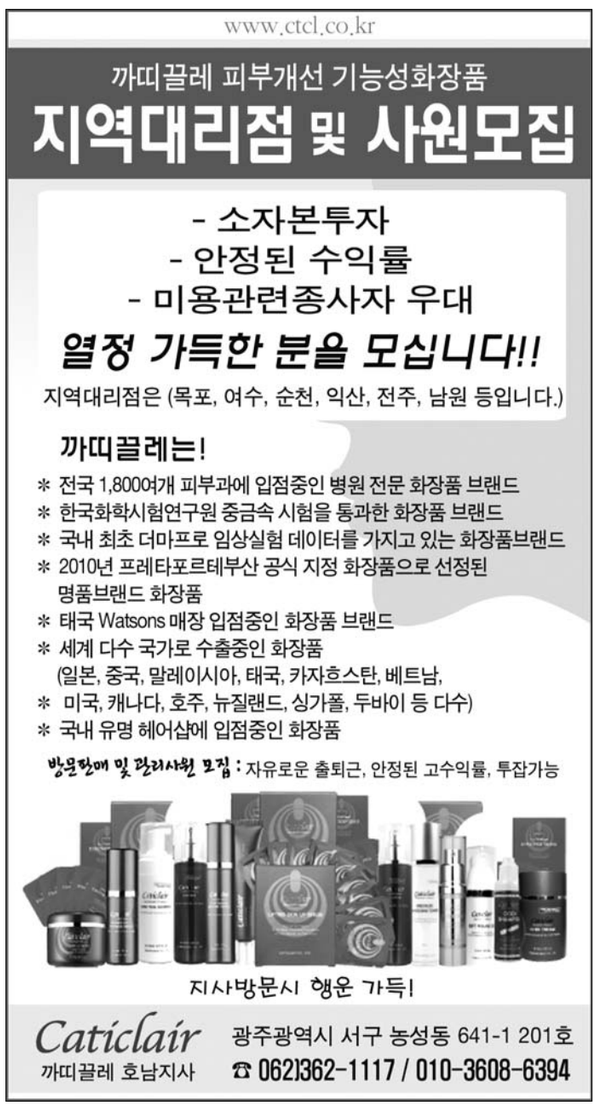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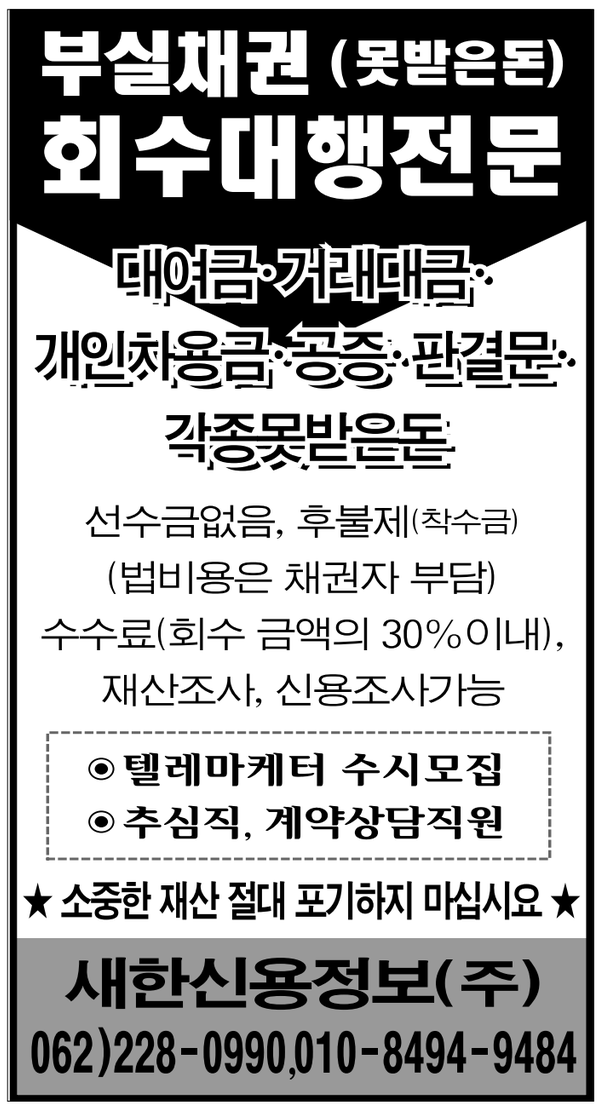
조배숙 의원

광주는 5·18 등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민주당의 심장이고, 지지기반이다. 광주가 뭉칠 때 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 승리했다. 많은 국민이 변화를 이야기한다. 말뿐인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하다.

일본 민주당이 54년 장기집권한 자민당을 깼던 것은 아동수당이었다. 국민의 마음을 깨는 정책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일반 시민 중 시민정책자문을 모셔 국민정책을 만들겠다. 201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강한 민주당이 돼야 한다. 그리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지금 우리는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갈등과 반목을 불식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 당을 하나로 만들고 화합으로 이끌겠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다. 여성들을 위해 반드시 지도부에 입성해야 한다. 여성의 자존심, 당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대표가 아니면 차석이라도 밀어주길 바란다.

“민주·진보 단결로 정권교체”

이인영 전 의원

광주는 이 나라의 양심이며, 민주화의 심장이고, 마음의 고향이다. 오늘 광주를 찾아 다시 길을 묻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광주시민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 현실에 안주하면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다. 민주와 진보의 분열을 민주당이 방치했을 때 국민은 크나큰 질책을 했다. 하나 되는 길로 반드시 가야한다. 그래야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 민주당이 혁신해야 한다. 혁신을 통해서 진보정당과 진보적인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미리 2012년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2012년에 민주와 진보가 단결해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민주와 진보가 하나로 뭉쳐서 한나라당과 싸우라고 호소했다. 민주와 진보가 굳게 단결해서 2012년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광주가 선택해달라. 광주에 길을 묻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